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이란

Islamic Republic of Iran

2022년 6월 27일 | 책임조사역(G3) 류강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국가개황

일반개황

면적	인구	정치체제	대외정책
1,648천 ㎢	85백만 명 (2021e)	신정공화국체제	친러시아, 친중국

GDP	1인당GDP	통화단위	환율(U$기준)
14,263억 달러	16,784달러	Iranian Rial (IRR)	42,000 (공식환율)

- 이란은 2020년 말 확인매장량 기준 원유 세계 4위, 천연가스 세계 2위의 자원부국이며, 2021년 GDP 기준 세계 14위이자 중동 1위의 경제대국임(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19위).
-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맹주국이자 역내 군사대국으로서 수니파 이슬람의 맹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지역 패권을 두고 오랜 기간 경쟁관계에 있음. 아울러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민족주의 성향의 이슬람 공화정이 들어서면서 기존 팔레비 왕조를 지지했던 미국과 적대관계로 돌아섬.
- 2015년 이란과 P5+1* 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타결로 국제사회가 대 이란 경제제재를 완화하여 일시적으로 이란 경제가 성장하였으나, 2018년 5월 8일 미국이 JCPOA 탈퇴를 선언하고 대 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한 후 다시금 경제난을 겪고 있음.

  *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및 독일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10. 23 수교 (북한과는 1973. 4. 19)

주요협정 문화협정('75), 외교관·관용사증면제각서교환('76), 상표권·특허권보호각서교환('76), 수산협력협정('78), 사회보장협정('78), 항공협정('01), 투자증진·보호협정('06), 무역협정('09), 이중과세방지협정('09), 세관협력·상호행정지원협정('17), 해운협정('08), 형사공조조약('18), 범죄인인도조약('18)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 출	282,002	186,342	177,469	농약 및 의약품, 기타정밀화학제품, 의료용기기
수 입	2,134,329	8,605	5,690	질소비료, 기호식품, 정밀화학원료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말 누계, 신규법인 수 기준) 34건, 58,990천달러

경제동향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 제 성 장 률	2.8	-2.3	-1.3	1.8	4.0
소비자물가상승률	9.6	30.2	34.6	36.4	40.1
재정수지/GDP	-1.6	-1.6	-4.5	-5.1	-4.5

자료: IMF, EIU

2018년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으로 경제여건 악화

-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민족주의 및 반미 성향의 이슬람 공화정이 들어선 이후 미국과 오랜 기간 대립해 왔으나, 2013년 6월 대선 결과 온건 개혁파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과 이란은 정상 간 대화를 개시하였음.
- 이란과 P5+1*은 2015년 7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체결한바 있으나, 2018년 5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같은 해 8월 및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 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였음.

  * 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및 독일

- JCPOA 체결에 따른 경제제재 완화로 이란은 2016~17년 원유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 등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였으나, 2018년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으로 경제성장률 및 수출증가율 마이너스 전환, 환율 및 물가상승률 폭등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됨.

[표 1]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2018년 8월 6일 (1차 제재)	• 이란 정부의 미국 달러 구매 및 취득 제한, 이란 금 또는 귀금속 교역 제재 • 이란 흑연, 금속(알루미늄, 강철, 석탄 등)에 대한 직간접 판매 및 공급 제재 • 이란 리알화(Rial) 거래 및 이란 외 이란 리알화 사용, 자금 유지 및 거래 행위 제재 • 이란 국공채 구입, 청약 및 발행 등과 관련한 일체 행위 제재 • 이란 자동차, 카페트 및 식료품 수입 면허 및 관련 금융거래 인가 취소 • 항공기 및 관련 부품 거래(수출입) 인가 취소 등
2018년 11월 4일 (2차 제재)	• 이란 항만, 해운, 조선 관련 분야 제재 • 원유 거래 제재 • 이란과의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거래 제재 • 이란 중앙은행과 외국 금융기관 간 거래 제재, 보험 및 재보험, 에너지분야 제재 •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 관련 제재, 이란 에너지 부문 제재
2019년	• 이란 중앙은행(CBI)과 이란 국가개발펀드(NDF) 최고 수준 제재(관련 모든 거래 제재) • 이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부무장관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
2020년	• 이란 18개 시중은행 추가 제재
2021년	• 이란의 철강·금속 제조업체 12곳 추가 제재

자료: KOTRA 및 수출입은행 이란 주재원 자료 참고

경제동향

국내경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석유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 4.0%의 플러스 경제성장 추정

-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일평균 원유 수출 규모는 2020년 40만 배럴에서 2021년 71만 배럴로 증가함. 이에 힘입어 2021년 일평균 원유 생산량 역시 전년 대비 22% 증가한 2.47백만 배럴을 기록, 석유 부문은 전년 대비 14.3% 성장하였음. 아울러 비석유 부문도 3.0% 성장하며, 이란 경제는 2021년 4.0%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IMF).

※ 산업별 GDP 비중(2020년 기준, EIU 자료) : 서비스업 56%, 광업·제조업(석유산업 포함) 34%, 농업 4%, 기타 6%

원유수출 증가 등에 따른 석유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2022년에도 플러스 경제성장 전망

- 이란은 중국에 대한 원유 수출 증가 등으로 원유 증산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석유 부문의 성장(전년 대비 8%대 초반 전망)에 힘입어 2022년 3%대 초반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할 전망임(IMF).

※ 주요 기관별 이란의 2022년 경제성장 전망: ('22.4월)IMF 3.0%, World Bank 3.7%, ('22.5월)EIU 13.8%, Fitch 7.8% [EIU 및 Fitch는 2022년 중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을 전제로 한 전망]

- OPEC의 Monthly Oil Market Report(2022년 5월)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2021년 4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여 IMF의 이란 경제 플러스 성장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음.

※ 최근 분기별 이란의 원유 생산량(천 배럴/일): ('21.3Q) 2,472 → ('21.4Q) 2,472 → ('22.1Q) 2,528
최근 월별 이란의 원유 생산량(천 배럴/일): ('22.2월) 2,538 → ('22.3월) 2,549 → ('22.4월) 2,564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리알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의 결과 40.1%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도 30%대 전망

- 경제제재가 완화된 2016년 및 2017년 이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9.1% 및 9.6%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이 리알화 가치 폭락 및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2018~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대를 기록하였음.

- 리알화 약세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생필품 국제가격이 더욱 상승하여,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0.1%에 달하였음.

- 재정적자 등으로 인한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라이시 행정부의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 추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생필품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IMF 및 World Bank는 각각 이란이 2022년 32.3% 및 37.6%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의 JCPOA 탈퇴 및 경제제재 복원 이슈로 리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및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이란 정부는 외화 확보 및 필수품 수입을 위해 2018년 4월 3가지 환율정책[공식 환율, NIMA 환율*, 시장 환율]을 도입함. 공식 환율은 이란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환율로서 주요 생필품 등 필수품 수입 시 적용되며, 2018년 4월 이후 대미환율을 42,000리알로 고정하고 있음. NIMA는 온라인 외환거래 시스템으로 이란 중앙은행이 외화 확보 및 무역에 필요한 외환시장을 만들고자 설립(2018년 4월)하였으며, 시장 환율과 차이가 크지 않아 통상 NIMA 환율은 시장 환율로 통칭되고 있음. 필수품을 제외한 산업재 및 일반재 수입시 적용되고 있고, 이란 중앙은행은 외화 확보를 위해 수출업체(원유제외)들의 외화가득액(수출금액 – 수출품의 제조를 위해 지출된 수입원재료 또는 연료 등의 합계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외화를 NIMA에 매각토록 의무화함.[1)]

1) 2022 이란 진출전략(KOTRA) 및 수출입은행 이란주재원 자료 참고

국내경제

[그림 1] 이란 시장환율 추이(2018.1월~2022.5월)

자료: Bonbast.com[파란선: 시장 환율, 빨간선: 공식 환율]

미국의 경제제재 복원의 영향으로 보조금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재정수입 감소로 2021년 GDP 대비 –4.5%의 재정수지 적자 추정

- 이란은 미국의 경제제재 복원으로 원유 수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어, 재정수입의 약 35~40%를 차지하던 석유 부문이 크게 위축되며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짐. 한편, 재정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및 생필품 수입 지원 보조금 등 복지 관련 지출 부담에 더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예산 지출까지 추가되어 이란 정부는 2019~21년 GDP 대비 -4~-5%대의 재정적자를 지속함.

- 이란은 휘발유, 전기 및 가스 부문 등 에너지 부문에 세계 최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제재 이후 이란 리알화 가치가 급락하며 수입 물가가 크게 상승하자 의약품을 포함한 생필품 수입을 위해 연간 90억 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을 수입자 앞으로 지급하며 재정부담이 가중되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 이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세계 최대 규모인 296억 달러(2020년 GDP의 3.2%)에 달한다고 보고함.

[표 2] 이란의 재정수지 추이(2017~21년)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정수지 (GDP 대비)	-8,192 (-1.6%)	-4,967 (-1.6%)	-9,858 (-4.5%)	-10,828 (-5.1%)	-16,789 (-4.5%)
재정수입	78,221	41,289	21,276	19,048	20,851
재정지출	86,413	46,256	31,134	29,876	37,640

자료: IMF 및 EIU

국내경제

원유 생산량 증가 및 판매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22년 재정수지 적자 축소 전망

- 이란은 원유의 생산량 증가 및 판매가격 상승 등으로 재정수입이 증대되어 2022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된 –4.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IMF).

- OPEC의 Monthly Oil Market Report에 따르면 이란의 2022년 1월 원유 생산량은 하루 250만 배럴을 기록하여 2021년 12월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2022년 4월까지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최근 월별 이란의 원유 생산량(천 배럴/일): ('21.12월)2,482 → ('22.1월)2,503 → ('22.2월)2,538 → ('22.3월)2,549 → ('22.4월)2,564

- 한편, EIU는 2022년 5월 보고서에서 이란의 원유 판매가격이 배럴당 2021년 81.9달러에서 2022년 111.0달러로 크게 상승할 것이며, 2022년 중 JCPOA 복원으로 원유 수출액이 증가(2021년 422억 달러에서 2022년 1,039억 달러)하여 2022년 GDP 대비 –1.3%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 상 수 지	14,915	26,741	3,754	-708	17,217
경상수지/GDP	3.1	5.2	0.6	-0.1	1.2
상 품 수 지	22,194	32,635	7,155	3,236	22,046
상 품 수 출	96,034	93,390	59,391	49,848	77,048
상 품 수 입	73,840	60,755	52,236	46,612	55,002
외 환 보 유 액	102,818	98,216	83,159	62,938	60,236
총 외 채	10,910	10,623	9,213	9,142	9,542
총외채잔액/GDP	2.3	2.1	1.4	1.0	0.7
D.S.R.	2.0	1.4	2.2	3.0	2.2

자료: IMF, EIU

원유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21년 경상수지 흑자 회복 추정

- 이란의 경상수지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실물경기 위축과 그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가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 및 수출량 감소로 이어져 적자 전환되었으나, 2021년에는 점진적인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의 국제가격 상승 및 수출량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가 급증하여(32억 달러 → 220억 달러) 경상수지도 GDP 대비 1.2%의 흑자를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이란산 원유 판매가는 배럴당 2020년 49.3달러에서 2021년 81.9달러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EIU), 일평균 원유 수출량은 2020년 40만 배럴에서 2021년 71만 배럴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IMF).

- 이란산 원유는 오만,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등을 통해 대부분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22회계연도의 상반기(2021.3.21.~2021.9.20.) 중 이란의 원유 수출액은 18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18% 증가함.

[표 3] 이란의 원유 생산/수출 및 판매가 추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원유 생산량 (백만 배럴/일)	3.80	3.47	2.19	2.02	2.47	2.76
원유 수출량 (백만 배럴/일)	2.15	1.55	0.53	0.40	0.71	1.00
이란산 원유 판매가 (달러/배럴)	58.6	69.3	58.6	49.3	81.9	111.0

자료: 원유 생산 및 수출량은 IMF의 Regional Economic Outlook(2022.4월), 원유 판매가는 EIU 자료 참고

대외거래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 수출이 증가하여 2022년 경상수지 흑자 폭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며, JCPOA 복원 시 경상수지 흑자는 더욱 확대 가능할 전망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의 고조, 미국과 EU의 대 러시아 제재에 따른 러시아산 원유 수출의 차질 등으로 국제유가는 최근 급등을 거듭하여 2022년 6월 13일 브렌트유 기준 배럴 당 122.01달러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여기에 IMF는 Regional Economic Outlook(2022.4월)에서 이란의 2022년 원유 수출 규모가 일평균 100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란은 원유 수출액 증가로 2022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이란의 2022년 1분기 일평균 원유 수출량은 87만 배럴로 2021년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2022년 3월 이란 국영석유공사(NIOC)의 모센 코자스테메르 CEO는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2021년 여름 이후 이란의 원유 수출 규모가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힘.

- 한편, Fitch는 2022년 3분기 전망 보고서(2022년 5월)에서 2022년 2~3분기 중 미국이 JCPOA를 복원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란이 2022년 GDP 대비 3.9%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으며, EIU(2022.5월)는 2022년 하반기 중 JCPOA 복원으로 원유 수출이 크게 증가(전년 대비 146% 증가한 1,039억 달러를 기록)하여 2022년 GDP 대비 21.3%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다만, 자국의 엘리트 군사조직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테러리스트 제재대상에서 삭제하라는 이란의 요구에 대해 미국이 거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이란도 핵심 핵능력의 비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2022년 6월 현재 JCPOA 복원을 위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임.

[그림 2] 국제유가 추이(브렌트유 기준)

자료: 네이버 (원자료: Intercontinental Exchange, Inc.)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 규모 및 외채잔액 지표 등을 고려 시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편

- 2021년 말 기준 이란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602억 달러로 동년 월평균 수입액의 10.7개월 수준이며,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11.4%), D.S.R.(2.2%),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0.7%) 등 외채상환능력 지표는 양호한 편임.
- 다만, 2017년 1,028억 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제재 이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급감*,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 이란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매입 금지, 이란 금융기관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 등으로 이란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은 사실상 차단되고 있어 외화자금 조달능력이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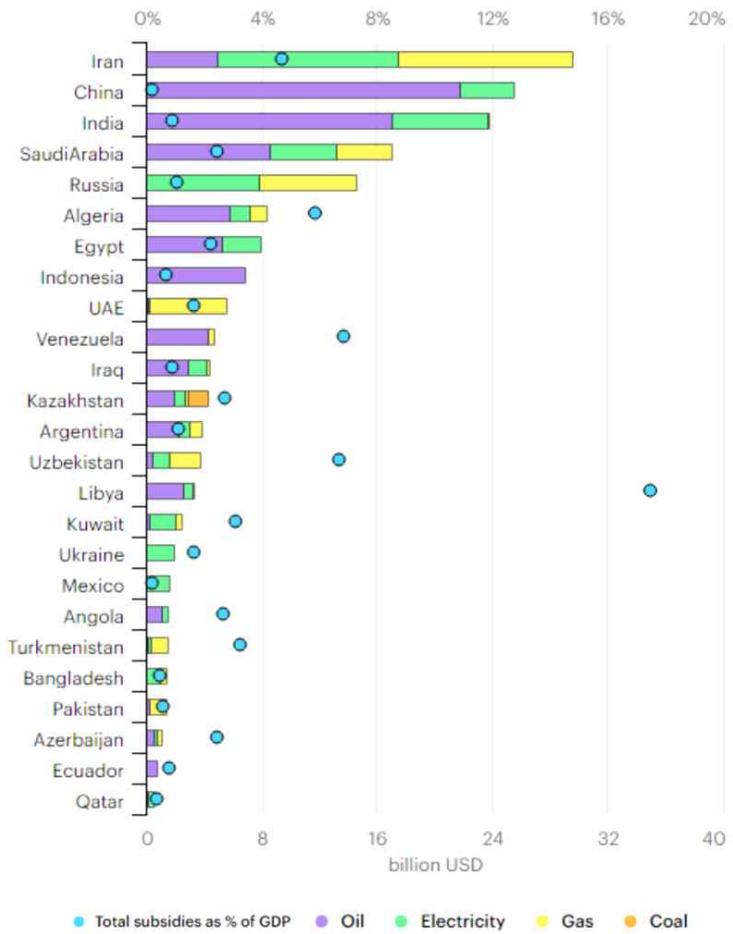
  * FDI 유입액(백만 달러) : ('17)5,019 → ('18)2,373 → ('19)1,508 → ('20)1,342 → ('21)1,425

구조적취약성

막대한 에너지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 지속

- 2018년 미국의 경제제재 이후 원유 수출이 급감하여 재정수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막대한 규모의 에너지 보조금 정책은 이란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0년 이란의 휘발유,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인 296억 달러로 GDP의 3.2%에 달함.
- 이란 정부는 재정건전성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2019년 11월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바 있으나 이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31개 주 중 29개 주에서 발생)시켰으며,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백 명이 사망하였음.
- 2022년 현재 미국의 경제제재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 대중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정부가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에너지 보조금 개혁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상위 25개국의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규모(2020년)



자료: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경제구조 및 정책

구조적취약성

보수 강경파 득세로 서방과의 대립으로 인한 경제적 고립 야기

-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국방·사법·종교·경제 등 국가 전반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종교지도자(아야톨라)를 중심으로 이슬람주의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이슬람혁명수비대 및 보수 성직자 등 보수 강경파가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음.
- 또한, 2021년 6월 제13대 대선에서 대표적인 강경·보수 성향인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보수 성향 의원들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까지 보수 강경파가 차지하면서 이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의 대립으로 인한 경제적 고립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총 290석 중 221석 이상을 차지

- 국력 회복과 경제 재건에 있어 이란 정계는 반미주의 및 이슬람 원리주의를 고수하는 보수파와 서구식 근대화의 일부 수용을 지향하는 개혁파로 나뉘고 있음.
- 한편, 이란은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응해 원유 수출 등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제조업 육성을 통한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항경제(Resistance Economy)'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국 내 생산능력 부족으로 국내 수요 물품의 3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성장잠재력

풍부한 부존자원 및 거대한 잠재 소비시장 보유로 성장잠재력은 높은 편

- 이란은 2020년 말 확인매장량 기준 원유 세계 4위, 천연가스 세계 2위의 자원부국이며, 2021년 GDP 기준 세계 14위이자 중동 1위의 경제 대국임(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19위).
- 2021년 인구 85백만 명, 평균연령 31.2세의 거대한 잠재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때 JCPOA 복원 시 해외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가능성이 높은 편임.
- 실제로 이란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규모는 2015년 21억 달러에서 JCPOA 합의 이듬해인 2016년에는 34억 달러로 증가한 뒤 2017년 50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중 플러스 경제성장을 시현함.

[표 4] 이란의 해외투자유입액 규모와 경제성장률(2015~19년)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해외직접투자 유입액(백만 달러)	2,050	3,372	5,019	2,373	1,508
경제성장률(%)	-1.4	8.8	2.8	-2.3	-1.3

자료: UNCTAD, IMF

성장잠재력

아시아·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

- 이란은 아시아·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터키,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 인근 지역의 중동, 서남아, CIS 10개국과 활발하게 경제교류를 하고 있음[2].
- 향후 JCPOA 복원 등을 통해 서방과의 갈등 문제가 해소될 경우,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유럽에서 중동을 거쳐 아시아로 이어지는 육상물류의 주요 통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Transport Intelligence에 따르면, 유럽-아시아(특히 인도) 간의 물류가 이란을 경유하는 경우 수에즈 운하나 지중해를 통과하는 것보다 30~4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그림 4] 현재 이란과 우호관계에 있는 주변국들의 관계도

자료: Google, KOTRA

2) 2022 이란 진출전략(KOTRA)

정책동향

'저항경제'를 천명하며 국내 제조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

- 자립경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저항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3월 하메네이 최고종교지도자는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자립을 통한 경제제재 대응을 강조함.
- 이란 정부는 필수재는 정부환율, 일반재는 시장환율로 기업들이 외환을 구입하게 하고 국내 생산이 가능한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수입을 줄여 외환 수요를 최소화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기반 확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자동차 부품 77개 품목에 대한 국산화 추진과 함께 SAIPA(이란 국영 자동차 제조사) 등 이란 주요 완성차 기업과 부품 제조 중소기업 34개사 간에 1억 달러 규모의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음.
- 그러나 경제제재로 인해 국산화에 필수적인 외국 기술 및 원자재의 수입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수준의 자립경제 기반의 구축은 출발점부터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치·사회안정

정치안정

최고종교지도자의 지지를 받은 라이시 대통령의 당선으로 강경·보수파 중심의 통제 강화

- 2021년 6월 이란의 제13대 대선에서 대표적인 강경 보수 인사인 에브라힘 라이시 후보가 61.9%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됨. 라이시 대통령은 하메네이 최고종교지도자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유력한 차기 최고종교지도자 후보로 꼽히는 인물임.
- 국방·사법·종교·경제 등 국가 전반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종교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슬람주의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이슬람혁명수비대 및 보수 성직자 등 보수 강경파가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까지 보수 강경파가 장악하여 강경·보수파 중심의 통제가 더욱 강화됨.
- IHS Markit(2021년 9월)은 대선 결과를 반영하여 이란의 정치 안정성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으나, 대선 투표율이 역대 최저(48.8%)를 기록한 것은 대중의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장기적으로 반체제 정서가 핵심지지층 사이에도 퍼진다면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

사회안정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 일자리 부족, 생필품 수입 보조금 축소 등으로 인해 대중의 불만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사회 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 2018년 미국의 경제제재 재개 이후 리알화 가치 급락으로 수입물가가 상승, 30%대 이상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삶의 질이 저하되는 와중에 2021년에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까지 더해져 국지적인 시위가 발생함.
- World Bank의 2022년 4월 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분의 1/3 정도만이 회복되었으며, 이상고온 현상과 물 부족 등으로 인해 2021/22회계연도(2021.3.21.~2022.3.20.)에 노동집약적 산업인 농업 부문이 역성장하여 경제 및 일자리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음.

  ※ 2021/22회계연도 산업 부문별 성장률: 농업 –1.3%, 제조업 4.6%, 서비스업 4.6%

- 이처럼 일자리 부족과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2년 1월 이란 정부가 식품 및 의약품 수입에 지급하던 보조금[3](연 90억 달러 규모)을 폐지(2022년 3월 시행)함에 따라 국민의 생활고가 가중되어 사회적 불만이 증폭될 위험이 있음.
  - 이란 정부는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수입 보조금 폐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상승을 부추겨 국민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음.
  - 한편, Fitch는 국민의 불만 증가에도 이란 정부가 강력한 이슬람혁명수비대 등의 지원을 받고 있어 현 체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3) 2018년 미국이 JCPOA를 파기하고 이란에 다시 경제제재를 부과하면서 이란 리알화 가치가 폭락하자 하산 로하니 前대통령 행정부는 리알화 가치 폭락에 따른 수입품 물가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 필수 수입품에 대해 수입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입 보조금 정책이 물가 안정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2022년 1월 동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

국제관계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여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협력 강화

- **(중국)** 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주요 석유 수출상대국**으로, 양국은 2021년 3월 '이란-중국 25년 협력 프로그램 협정'에 서명하며 원유 및 금융, 보험업 교류를 확대키로 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함. 이란은 같은 해 9월 중국·러시아 등의 주도로 설립(2001년 6월)된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성공을 이뤄냈다고 자평하였음.

* 2020년 기준 이란의 대 중국 상품수출 비중은 43%, 상품수입 비중은 29%임(IMF).

** 이란의 원유는 중국과 이라크 등 중동 지역 주변국 일부에 국한하여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SCO는 2022년 6월 현재 중국, 러시아, 인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이란 총 9개국이 정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음. 회원국 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표 5] 각국의 이란산 원유 일일 평균 수입량 추이(배럴)

국가명	2011	2014~2016 (JCPOA 기간)	2018. 5 (美JCPOA 탈퇴)	2018. 10 (美제재복원)	2021. 3 (SRE 종료 후)
EU	600,000	Negligible	520,000	100,000	Unknown(U)
중국	550,000	410,000	700,000	838,000	900,000
일본	325,000	190,000	133,000	0	U
인도	320,000	190,000	620,000	354,000	U
대한민국	230,000	130,000	100,000	0	U
터키	200,000	120,000	200,000	161,000	U
남아공	80,000	Negligible	Negligible	0	U
기타 아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90,000	Negligible	Negligible	0	U
대만	35,000	10,000	67,000	0	U
싱가포르	20,000	Negligible	Negligible	33,000	U
시리아	negligible	Negligible	33,000	96,000	U
중동(이라크, UAE)	55,000	Negligible	100,000	21,000	U
총 계	2,500,000	1,060,000	2,450,000	1,600,000	1,300,000

자료: KOTRA (원자료: 미 의회 대 이란 제재 보고서, Iran Sanc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4.6.)

-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벨라루스의 5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인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은 2018년 5월 이란과 약 530여 개 산업재에 대해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하는 등 이란의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2021/22회계연도 기준 이란과 EAEU 간 무역 규모는 5,643백만 달러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66% 증가하였으며, 이란과 EAEU는 2022년 말까지 현재의 PTA를 완전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정치·사회안정

국제관계

- **(러시아)** EAEU 회원국 중 2020년부터 이란의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러시아는 이란의 원전 프로젝트 및 아반(Aban) 지역 원유 개발에 참여하는 등 이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 강화 이후 이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2022년 3월 러시아는 이란과 협력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공동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양국은 SWIFT(국제은행간통신망) 거래를 우회하기 위한 은행 간 시스템 연계 협력을 시작함.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대한 외국 테러조직 지정 철회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의견 차이로 JCPOA 복원 장기화 가능성

- 서방과 이란은 2021년 4월 이후 JCPOA 복원을 위해 2022년 2월까지 9차례 회담을 진행하였으나, 이란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하여 유럽연합(EU)의 중재 하에 간접 방식으로 회담을 진행 중임.

- 2022년 2월 미국이 이란의 일부 핵 시설에서 진행하는 민간 프로젝트에 외국 정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JCPOA 복원 기대감이 커지기도 하였으나,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대한 외국 테러조직 지정 철회 요구' 및 '제재 부활 방지 보증' 등의 사안에 대해 미국과 이란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JCPOA 복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은 2022년 3월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란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였으며, 올 4월에는 이란을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라고 발표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음.

- 이란 역시 2022년 3월 발생한 이라크 주재 미국 영사관 주변 미사일 공격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슬람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카셈 솔레이마니의 암살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암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보복 공격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이란의 원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이란의 경제 및 재정여력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란이 무리한 양보를 하며 JCPOA 복원을 이끌어 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정치·사회안정

국제관계

수니파 이슬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지역 패권을 두고 오랜 경쟁관계에 있으나, 최근 양국 간 관계의 변화 기류 감지

-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맹주국으로서 수니파 이슬람의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지역 패권을 놓고 오랜 기간 경쟁관계에 있으며, 양국은 지역 분쟁을 세력 확장의 장으로 활용하여 이라크,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에서 대립하고 있음. 그 결과 중동 지역은 친미 성향의 수니파 진영과 반미 성향의 시아파 진영으로 나뉘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양국은 2021년 4월 이후 이라크와 오만의 중재 하에 관계 복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4월까지 다섯 차례의 협상이 진행됨. 2022년 4월 30일 무스타파 알카디미 이라크 총리는 5차 회담 이후 양국 간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언급하는 등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매년 이란인 4만 명의 메카 성지순례를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허가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 양국 관계는 앞서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가 반체제 성향의 시아파 성직자를 처형하면서 촉발된 갈등으로 단절된 바 있음.

외채상환태도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으로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율 악화

-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율은 대 이란 경제제재가 완화된 2016~17년 이란이 연체액을 대거 상환하면서 2018년 9월 말 기준 5.6%를 기록하였으나, 미국의 JCPOA 탈퇴에 따른 경제제재 복원 이후 연체율이 점차 상승하여 2022년 3월 말 기준 85.4%*를 기록함.

  * OECD 회원국 ECA 앞 외채잔액 452백만 달러(단기 68백만 달러, 중장기 384백만 달러), 연체금액 386백만 달러

- 2022년 3월 말 기준 이란의 연체율은 높은 수준이나, 2021년 말 기준 이란의 외채상환능력과 연체금액 규모, 과거 이란이 경제제재 해제 이후 ECA 앞 연체액을 대거 상환했던 점을 고려할 때 만약 JCPOA가 복원된다면 ECA 앞 연체금액 상환을 통해 연체율을 빠르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2022.01)	7등급(2021.01)

OECD는 2020년 이후 이란의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유지

- OECD는 미군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 등으로 인한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을 우려하여 2020년 1월 이란의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1등급 하향 조정한 후 2022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OECD는 2018년 1월 이란의 국가신용등급을 5등급으로 부여한 적도 있으나, 2018년 5월 미국의 JCPOA 탈퇴 및 대 이란 경제제재 복원 선언으로 이란의 국가등급을 2018년 6월 6등급으로 1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종합의견

- 이란은 2018년 미국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탈퇴 및 경제제재 복원 직후 경제성장률 및 수출증가율의 마이너스 전환, 환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폭등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급격이 악화됨.
- 미국의 경제제재 지속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실물경기 회복으로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의 국제가격 상승, 중국 앞 원유 수출 증가 등에 따른 생산량 증가 등에 힘입어 2021년 4.0%의 플러스 경제성장 및 52.2%의 총수출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가 개선됨.
- 2021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는 월평균수입액의 10.7개월분이며, 외채상환능력 지표는 양호한 편이나 미국의 경제제재로 국제 금융시장 접근이 사실상 차단되고 있어 외화자금 조달능력은 낮은 수준임.
- 이란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여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니파 이슬람인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지역 패권을 두고 오랜 경쟁관계에 있으나, 최근 양국 간 긍정적인 관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음.
- 2022년 2월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완화로 JCPOA 복원 기대감이 고조되었으나,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대한 외국 테러조직 지정 철회' 등의 사안에 대해 미국과 이란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JCPOA 복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